



# 시민행복도시 건설... 익산형 행정으로 대도약 완성

## 정헌을 호 민선8기 목표 '가장 익산다운 도시'

**정**헌을 익산시장이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익산형 행정'으로 지역의 미래를 완성하겠다고 선언했다. 정 시장은 지난 2016년 취임 이후 6년간 수많은 난제를 해결하며 혁신과 대도약의 밑그림을 그리는 데 주력했다. 앞으로 펼쳐질 정헌을 호의 민선 8기는 시민의 삶과 행복이 중심이 되는 가장 익산다운 도시로 변화하는 게 목표다. 어려운 민생경제 살리기를 최우선으로 지역 균형발전으로 활력이 넘치는 도시, 미래를 꿈꿀 수 있는 경쟁력 있는 도시, 무엇보다 시민들이 행복한 따뜻하고 안정된 도시 조성에 힘을 예정이다.



### ▲ '쾌적한 정주여건'으로 전국에서 가장 행복한 도시 도약

숲과 물, 자연이 공존하는 쾌적한 정주여건으로 시민들에게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제공한다.

도시공원 민간특례사업을 통해 여의도 면적의 절반이 넘는 대규모 도시공원과 숲세권 명품 주거단지를 조성하고 천혜의 자연경관을 보유하고 있는 만경강 일원에 친환경 수변도시를 속도감 있게 추진한다.

이와 함께 합리산 국립치유의 숲과 용안생태습지 국가정원, 왕궁복수지역 생태 힐링 숲 조성 사업을 차질없이 진행하고 도심 곳곳에 정원과 산책로 등을 확대해 시민들이 가지치고 품격 있는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지원한다.

권역별 문화와 관광 체육활동을 누릴 수 있는 '행복생활권' 인프라를 구축하고 도시 곳곳에 시민이 함께 만들어가는 백제고도 역사문화 콘텐츠를 도입해 일상 어디서든 문화와 여가를 즐길 수 있는 행복 도시로 도약한다.

### ▲ '역세권 개발'로 활력 넘치는 도시 조성

익산시는 대도약을 통한 지역 발전을 완성하기 위해 국내 최고 대기압과 함께하는 KTX 익산역 복합개발'에 집중한다.

(유)한화건설 등 국내 최고 대기압이 참여하기로 하면서 이미 KTX익산역의 투자기회와 성장 잠재력을 인정받았으며 사업의 성공 가능성은 더욱 높아졌다.

익산역 선상 부지에 전국 어디든 빠르게 이동할 수 있는 광역복합환승센터와 환승지원시설을 건립하고 익산역 내부 철도차량기지를 도심 외곽으로 이전해 주거, 상업, 산업시설 등을 포함한 단지를 조성한다.

사업이 원활하게 진행되면 이곳은 지역의 산업 중심지로 부상하는 것은 물론 역세권 배후 정주여건 조성으로 양질의 일자리 창출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향후에는 출입국 수속을 할 수 있는 CIQ 기능을 추가해 유라시아 대륙철도 거점역으로서 입지를 확고히 다지고 국제철도시대에 선제적으로 대응해나갈 방침이다.

만경강 수변도시 추진 '속도' 행복생활권 인프라 구축 백제고도 역사 콘텐츠 도입 KTX 익산역 복합개발 집중

코로나19로 어려워진 민생경제 살리기 최우선 '다이어وم' 혜택 다양화

그린 바이오 혁신파크 조성 국내 최대 바이오메카로

### ▲ 따뜻하고 안정된 도시 익산, '다이어움'으로 통하다

민선 8기 익산시는 코로나19로 어려워진 민생경제 살리기를 최우선으로 모든 행정 역량을 집중한다.

그 일환으로 골목상권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는 '다이어움' 혜택을 더욱 다양화한다. 전국 최대 규모를 자랑하는 다이어움 혜택을 하반기에도 제공하며 지역화폐와 연계한 맞춤형 택시호출업 '다이어움 택시'를 운영하는 등 다양한 분야에 다이어움을 접목시켜 효과를 극대화할 예정이다.

지역경제의 싹틔울인 소상공인들이 지역에서 안정적으로 영업활동을 이어갈 수 있도록 각종 정책을 발굴하고 지원을 이어간다. 시는 이미 카드수수료 전액 지원, 특례보증, 노란우산공제 가입 지원 등 소상공인을 위한 전국 최대 규모의 혜택을 제공해 왔다.

앞으로도 시는 다이어움 중심의 익산형 경제정책으로 지역경제를 안정화하고 따뜻하고 활력이 넘치는 도시 조성에 박차를 가한다.



정헌을 익산시장이 5일 민선8기 취임 첫 기자회견을 열고 익산형 행정으로 지역의 미래를 완성하겠다고 향후 시정 운영 방향을 설명하고 있다.



만경강 수변도시 조감도



익산역 전경



광역환승체계 추진 협약

### ▲ '바이오산업'으로 익산의 미래를 꿈꾼다

익산시는 바이오 분야를 지역의 대표 신산업으로 육성해 미래를 선도하는 국내 최대 바이오 메카로 도약한다.

이를 위해 분양이 완료된 제3산단을 28만여㎡(8만평) 가량 확장하고 그린 바이오 혁신파크를 새롭게 조성한다. 이어 국립화귀질환센터를 적극 유치하고 사람과 동물 환경까지 아우르는 '웰월스 통합연구센터'를 건립해 감염병 공동대응체계를 구축할 예정이다. 지역이 보유하고 있는 우수한 보건 의료 전문

### 인력과 아시아 최대규모인 인수공통전염병 연구소 등 각종 인프라를 활용해 공공 보건 의료와 바이오가 융합된 탄탄한 산업기반을 조성한다.

이밖에도 국가식품클러스터에 세계적 식품기업과 연구소 유치로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고 자율주행 자동차 거점도시 기반을 마련해 스마트도시의 초석을 다진다.

이를 토대로 미래 혁신산업으로 산업구조를 고도화해 기업과 인재가 모여드는 도전과 기회의 도시로 발돋움한다. 미래 신산업 기술과

### 창업, 성장이 선순환하는 가치사슬이 형성되면 청년들에게 양질의 일자리 제공은 물론 인구 유입 효과도 기대된다.

정 시장은 "지난 6년은 혁신과 대도약의 밑그림을 그리는 데 집중하는 시간이었다면 민선 8기는 새로운 익산시대를 열기 위한 대전환의 시기이다"며 "시민들의 행복한 삶을 완성하기 위해 4대 비전을 토대로 도전과 혁신의 길을 멈추지 않고 속도감 있게 나아가겠다"고 전했다. /익산=이재훈 기자

## 전주천을 살립시다

**자연과 인간이 어우러진 생태이전 - 전주천**

전주의 남동쪽에서 북서쪽으로 흐르는 전주천은 유역면적 31.53km<sup>2</sup>, 길이 30km의 지방 1급 하천이다.

전주에서 남동쪽으로 26km 정도 떨어진 임실군 관촌면 슬치에서 발원하여 시의 중심지를 관통하여 흐르는 전주천은 서신동 추천에서 삼천(三川)과 합류하는 만경강 제1지류이다

전주매일 캠페인